

전남대,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서 100위권 진입



전남대학교 용봉관

전남대학교가 세계대학 평가에서 100위권
 에 진입했다.

25일 전남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THE(Times Higher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THE 평가... 지난해는 300위 권
 정성택 총장 “지역사회 발전·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 할 것”

Education)가 발표한 2021 THE 세계대학 영향력 순위에서 세계 101~200위권에 진입했다. 전남대의 지난해 순위는 301~400위였다. 올해 발표 순위 대상 대학은 지난해 보다 347개나 늘어난 1115개에 달했다고 전남대는 설명했다.

THE의 세계대학 영향력 순위는 대학이 UN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평가하는 랭킹이다.

전남대는 ▲건강과 복지 ▲교육의 질 ▲양성평등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등 17개 항목 가운데 12개 필수 제출 항목에 참여, 이 같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부문은 세계 15위 ▲기아 해소 부문 세계 33위 ▲산업·혁신과 인프라 부문 세계 74위에 올랐다.

국내 순위에서도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부문이 2위 ▲해양생태계 보전 1위 ▲육상생태계 보전 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세계적으로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이 높아지는 만큼 대학평가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며 “전남대가 교육·연구는 물론 지역 사회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무등산 품은 시립수목원
 조성 13년만에 선보인다
 남구 양과동에 470억 투입 내년 완공

‘광주의 어머니’인 무등산의 사계와 남도의 멋, 광주다움을 한껏 품은 명품 수목원이 부지 선정 13년 만인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시립수목원이 조성되면 남도에 자생하는 식물이나 무등산을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수종들을 연구하고 유전자를 보존·증식할 수 있게 된다. 도심 속 시민 쉼터와 교육 체험의 장소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시는 시립수목원 조성사업이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립수목원은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에 총사업비 470억 원을 투입해 24만6948㎡(7만4700평) 규모로 조성되며 지난해 4월 착공해 현재 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까지 대부분의 공정을 진행하고 내년 5월 조성공사를 완료하게 된다.

광주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공립수목원이 없어 지역수종들을 연구하기도 어려웠고, 시민들도 남도의 특색을 지닌 산림, 정원, 온실수목원 등의 체험을 향유할 수 없었다.

시립수목원 조성은 2009년 조성 예정지 지정 이후 지지부진했으나, 민선7기 들어 급물살을 탔다. 시립수목원은 환영의 숲과 무등산 사계숲, 미래건강 숲 등 주제별로 3개 숲으로 구분해 조성된다.

지난 20일에는 시와 산림청,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업무협약을 맺어 도심 속 산림문화·휴양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았다. 시립수목원은 당초 계획됐던 62ha에서 24ha로 규모가 줄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주변 국립림 내 산림사업과 연계한 이용 공간 확대가 가능해졌다.

시는 남의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시립수목원 중앙을 흐르는 수천천을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정비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광주만의 생태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수목원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광주 요양병원 종사자 AZ백신 접종 한달만에 확진...역학조사

“백신 접종해도 항체 형성률 90% 정도...마스크 착용 등 준수해야”

광주에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가 한달만에 확진돼 방역당국이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요양병원 종사자(광주2370번)

가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종사자는 최근 확진자가 나온 광주의 한 호프집 이용자로 확인돼 전수 검사를 받았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종사자는 지난달 25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

차 접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항체 형성시기는 접종 후 2주이며 총 2차례 접종하도록 규정돼 있다.

1차 접종 후 1달이 지난 뒤 종사자가 확진돼 방역당국은 항체 형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자도 코로나19

에 감염되기도 했다. 노인복지센터 이용자인 광주2351번 확진자는 지난 19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가 한달만에 코로나19에 감염돼 질병청에 사례보고를 했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도 항체 형성률은 90% 정도인 만큼 접종 후에도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희기자

곡성군, 지역재생잠재력지수 1.65...전국 42위

여성인구 중 둘째 이상 아이 낳은 비율...지역 전반적 출산 분위기 파악 지표

곡성군은 한국농업경제연구원 발표된 '2020 지역재생잠재력지수'에서 1.65를 기록해 전국 229개 지자체 중 42위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15~49세 여성인구 중 둘째 이상 아이를 낳은 비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지역의 전반적인 출산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곡성군은 인구감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생태계 조성과 숲 교육, 예술교육, 4차 산업 교육 등을 중점 육성했다.

또 교육청, 민간과 함께 지역 교육을 전담할 미래교육재단을 출범시켜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해 운영했다.

성인들이 자발적으로 학습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강사로 양성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곡성=양혜영기자

코로나19로 어린이날 행사 축소 광주시, 시간대별 50명 사전예약

광주시가 5월5일 제99회 어린이날 관련 행사를 축소 진행키로 하고 사전예약을 받기로 했다.

시는 25일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매년 진행해온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등을 우려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축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시간대별로 50명만 한정해 받을 예정이다. 사전신청은 시 홈페이지 '바로 예약'에서 가능하다.

시는 모범어린이, 사전 신청 어린이 등 어린

이 주인공들을 초청해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놀이공간이 부족했던 어린이들에게 각종 체험부스와 놀이공간 등 즐길거리도 제공할 계획이다.

기념식은 식전공연(비블쇼)을 시작으로 개회식, 국민 의례, 동영상 시청, 어린이 표창, 추사, 아동권리헌장 낭독, 인형극 순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기념식과 축하공연은 유튜브 ‘헬로광주’, 광주시 페이스북 등 실시간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이어서 비대면으로도 어린이날 행사를 즐길 수 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랜선곡성여행

제5회 곡성군 소셜미디어 사진공모전

PHOTOGRAPHY

2017 제2회 곡성군 소셜미디어 사진공모전 입선작 김정현-침실습자의 부드러운 아침물결

공모기간
 21. 3. 15. 월 - 6. 30. 수

발표일 2021. 7. 16. (금)

참여자격 전국민 누구나

시상안내 18명 선정 / 총 상금 4,000,000원
 작품 수준 미달시 아차상 취소 가능

발표안내 홈페이지 및 군 공식 블로그 게재 (개별 연락)
https://blog.naver.com/gokseong_love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사진 원본파일(3MB 이상)
 곡성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제출방법 이메일과 우편접수
 이메일 : sangyu100@korea.kr
 우편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미래혁신과 스마트홍보팀